

국내 스칸디나비아 지역 연구의 흐름과 동향*

이성준** · 김기수***

본 연구는 1) 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국내 스칸디나비아 연구를 총체적으로 수집하고 전반적인 연구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기초 통계 자료를 추출, 소개한 후, 2) 이들 연구 가운데 본격적인 학술 연구로 분류 가능한 표본을 2차 추출, 키워드 분석을 통해 세부 연구 분야별 흐름을 더욱 자세하게 분석하고, 2) 마지막으로 국제 스칸디나비아 연구와 국내 스칸디나비아 연구 흐름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 검색에는 누리미디어의 DBpia와 학술교육원의 e-Article, 총 2개의 학술 DB가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국내 스칸디나비아 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사회과학일반, 사회/사회복지학, 정치외교학 그리고 교육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 복지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거나, 또는 이를 가능케 한 사회적 배경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 스칸디나비아 연구와 비교하여 국내 스칸디나비아 연구의 경우 경제/경영 관련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단적

* 본 연구는 2018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주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브라질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칸디나비아연구센터 연구원

으로 작은 편이며 다루고 있는 주제의 폭도 훨씬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스칸디나비아 연구, 북유럽 연구, 지역학, 키워드 분석, 서지 정보 분석

1. 서론

한국 사회가 점차 선진국 문턱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성장과 복지 간 선순환 구조를 성공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 스칸디나비아 국가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특히 각종 언론 기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편인데 예를 들어,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도입 및 스웨덴 예테보리(Göteborg)시의 ‘하루 6시간 노동’ 실험 등은 이미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보통 ‘기획연재’ 형식으로 국내 언론지상에서 종종 다루어지는 스칸디나비아 국가 시스템 관련 논의는 주로 복지, 노동, 선거, 성 평등 등 이해집단 간 첨예한 대립이 나타나는, 따라서 해결이 매우 곤란한, 각종 사회 현안을 중심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과거 경험 및 극복 방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내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는 식의 논리 구조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때로는 ‘스칸디나비아 모델’을 이미 한물간 것으로 평가하는 기사도 종종 눈에 띄지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대다수 한국인은 세계 최고 복지 국가로서 스칸디나비아 국가를 어느 정도 ‘부러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스칸디나비아 국가 시스템의 전반적인 평가에 관한 일반 한국인의 시각은 아마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혹자는 소위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관점에서 스칸디나비아 국가가 과거 걸어온

길이 앞으로 - 적어도, 장기적 차원에서 - 한국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길이라는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보통 한국 사회가 점차 다원화되면서 이해집단 간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소득 격차의 지나친 확대 등 과거 성장주의 정책 기조의 병폐가 여러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으로 ‘스칸디나비아 모델’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유팔무, 2015). 둘째로, 정반대의 시각, 즉 스칸디나비아 국가 시스템은 소위 ‘과거의 유물’이며 따라서 이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스칸디나비아 모델’의 성공이 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가 고도성장하던 시기애나 가능했던 것이며, 국가 간, 기업 간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한 현재 시점에서 이는 오히려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을 둔다(김태성, 1999). 마지막 셋째로, 위 두 시각을 절충한 - 아마도, 가장 일반적인 -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분명 학습 가치가 있는 훌륭한 제도 또는 이념이지만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사뭇 다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를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유토피아적’ 발상이며 이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참고는 하되 경우에 맞추어 현명하게 취사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김연명, 2011; 김연명, 2010).

이처럼 스칸디나비아 국가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시각이 동시에 공존, 충돌, 경쟁하는 상황에서 학계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제언을 한국 사회에 제공할 책임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내 학술 DB를 이용, 국내에서 발표된 스칸디나비아 지역 관련 연구를 총체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 어느 분야에서 어떠한 연구가 얼마나 많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어떠한 연구가 주목받았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저자는 이미 2017년 6월 스칸디나비아연구 제19호에 국제 스칸디나비아 연구의 흐름을 살펴본 『스칸디나비아 지역 연구의 흐름과 동향: SCOPUS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논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본 연구는 해당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밝힌

다(김기수 이성준, 2017).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국내 스칸디나비아 연구를 총체적으로 수집하고 전반적인 연구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기초 통계 자료를 추출, 소개한 후, 2) 이들 연구 가운데 본격적인 학술 연구로 분류 가능한 표본을 2차 추출, 키워드 분석을 통해 세부 연구 분야별 흐름을 더욱 자세하게 분석하고, 2) 마지막으로 국제 스칸디나비아 연구와 국내 스칸디나비아 연구 흐름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최근 복지 국가 관련 논의에서 디자인, 웰빙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스칸디나비아 관련 지식 수요에 대한 학계의 응답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론

2.1 표본 수집

국내 스칸디나비아 연구 관련 논문 수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논문 검색에는 누리미디어의 DBpia와 학술교육원의 e-Article, 총 2개의 학술 DB가 사용되었다. DBpia의 경우 논문 수 기준 국내 1위 학술 DB로서 본 연구에서 가장 우선하여 사용되었으며, 추가로 DBpia에 등록되지 않은 논문 검색을 위해 e-Article이 사용되었다. 검색어로는 1) 스웨덴, 2) 노르웨이, 3) 덴마크, 4) 핀란드, 5) 아이슬란드, 6) 스칸디나비아, 7) 북유럽, 8) 북구, 9) 노르딕이 사용되었으며, 검색 조건으로는 기간 제한 없이 1) 논문 제목에 이들 검색어가 최소한 하나 이상 포함되는 경우, 2) 한글로 작성된 경우, 그리고 3) 사회과학으로 분류되는 경우로 제한했다. 참고로 이러한 조건은 위에서 언급한 본 연구의 선행 연구, 즉 『스칸디나비아 지역 연구의 흐름과 동향: SCOPUS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에서 적용된 조건과 같은 조건이며, 따라서 두 연구의 결과는 서로 비교 가능함을 밝힌다. 본 연구는 국내 스칸디나

비아 연구의 총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인문학, 특히 어문학과 문학도 연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가급적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 분야의 경우 논문 제목에 국가명이 포함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개별적 사조나 작가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기에 스칸디나비아 연구의 전반적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의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인문학 분야는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검색 결과, DBpia의 경우 사회과학 분야에서 총 603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참고로 인문과학 분야는 101편, 공학 분야는 185편, 예술체육 분야는 88편, 자연과학 분야는 52편, 복합학 분야는 35편, 농수산해양학 분야는 18편, 의약학 분야는 12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반면, e-Article의 경우 "스칸디나비아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제외하고 상당수 검색 결과가 사실상 DBpia 검색 결과와 겹치는 모습을 보였다. 간혹 후자에서만 검색 가능한 논문도 소수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수가 매우 적고, 또한 두 DB의 논문 분류 기준이 서로 다른 관계로 검색 결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웠으며, 따라서 e-Article의 경우 "스칸디나비아연구" 서지정보 수집에만 사용되었다(영어 및 스웨덴어로 작성된 논문 포함). "스칸디나비아연구"에 수록된 논문은 총 171편이 검색되었는데 이 가운데 휘보, 학회 활동 보고, 특별 강연 및 인문학 등으로 분류 가능한 논문 등을 제외하고 총 129편의 논문이 연구에 사용되었다. 검색 조건의 한계로 말미암아 불필요하게 섞인 99편의 논문을 수작업으로 제거한 후 - 예를 들어,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 및 성북구 관련 논문 등 - 최종 표본으로 총 633편의 논문이 추출되었다(DBpia 초기 표본 603편 - 수작업으로 제거된 99편 + "스칸디나비아연구" 129편).

DBpia의 경우 각각의 논문이 속하는 학문 분야를 2단계, 즉 대분류와 중분류로 구분하여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총 3가지 분류 방법, 즉 1) DBpia 기본분류, 2) 한국심진분류(KDC), 3) 한국연구재단분류 기준이 제공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키워드 분석 이전 스칸디나비아 연구 전체 동향 파악 단계에서는 DBpia 기본분류 기준이 사용되었다. DBpia 기본분류의 경우, 대분류는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산해양학, 예술체육,

복합학, 교양 등 총 9개 범주를 포함하며, 중분류는 사회과학의 경우 사회과학일반, 경제/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등 총 14개 범주를 포함한다. e-Article의 경우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분류 기준 - 즉, 8개 대분류, 사회과학의 경우 19개 중분류 - 이 사용된다. 따라서 "스칸디나비아연구"에 수록된 논문의 경우 DBpia 기준에 맞추어 논문 제목, 초록, 키워드 등을 참조, 수작업으로 재분류 - 중분류 기준 -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후, 키워드 분석을 위한 2차 표본 추출이 이루어졌다. 2차 표본 추출에는 분류 기준의 일관성을 고려, DBpia 검색 결과만 사용되었다. DBpia에서 검색된 총 625개 초기 표본에 대한 정밀 검사가 이루어졌다. 검사 결과, 상당수 연구가 1) 키워드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2) 본격적인 학술 논문이 아닌 월간 교통, 인물과 사상, 월간 복지 동향 등 전문 잡지 등에 실린 기고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연구"도 학계의 전반적으로 흐름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유용한 표본이 될 수 있겠으나 세부적인 키워드 분석에는 적합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제거되었다. 제거 결과, 최종적으로 총 325개 논문이 키워드 분석에 사용되었다.

2.2. 분석 방법

분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먼저, 1차 분석의 경우 전반적인 국내 스칸디나비아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기본 서지정보의 연도별 빈도분석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었다. 더불어, 서지정보에 포함되지 않지만 DBpia 검색창에서 확인 가능한 이용 수 및 피인용수 관련 정보도 따로 정리되었다.

2차 분석의 경우, 1차 분석 결과에서 더 나아가 개별 학문 분야 내 세부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키워드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상 논문은 사회과학 대분류로 한정하였는데, 결과 논문 수는 325편이며, 키워드 표본은 총 687개 였다. 키워드 분석 절차는 각 학문 분야별로, 또 시기별로 어떠한 분포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개별 키워드의 빈도수를 파악한 후, 상위 20개 키워드를 추출하여 해당 키워드가 어떠한 단

어(키워드)와 주로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추가되었다.

3. 분석 결과

3.1. 국내 스칸디나비아 연구 동향

연도 및 분야별로 검색된 국내 스칸디나비아 연구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스칸디나비아 연구 동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연도별 논문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부터 양적으로 큰 성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큰 변화 없이 계속 연간 약 3~40개 안팎의 수를 유지하다가 2016년 이후 20개 수준으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 1>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스칸디나비아 연구의 이러한 양적 변화는 상당 부분 사회/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일반 분야 연구 그리고 좀 더 범위를 확대하면 교육학 및 정치외교학 분야 연구의 증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분야 연구의 경우 물론 어느 정도 양적 증감은 있지만, 그 정도가 이들 분야만큼 뚜렷하지는 않다. 특히 사회/사회복지학 연구의 경우 2006년부터 그 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2000년대 중반 국내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하면서 기본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후 현재 심화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 수가 소폭 감소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연구 분야별 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 사회과학일반, 2) 사회/사회복지학, 3) 정치외교학, 4) 교육학 분야의 연구가 두드러진다. 이는 어느 정도 기대되었던 결과로서 상당수 스칸디나비아 연구가 사실상 복지국가 - 교육 포함 - 관련 담론, 또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배경 등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 연도별 및 분야별 스칸디나비아연구 현황

연도	1963	1965	1967	1972	1973	1981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신문방송학		1							1													
법학			1								1	1		2						1	1	
경제/경영학				1						1												1
정치외교학					1	1	1	1		3	3	1		2	1	1	1	1	3	1		
사회/사회복지학								1						1	3	4	2	5	2	3		
사회과학일반										2	1		2			1	1	1	2	4	2	
행정학																1	1			1		
교육학																					1	
지리/지역학																						
민속학																						
심리과학																						
관광학																						
철학																						
합	1	1	1	1	1	1	1	1	4	4	5	1	4	3	4	7	5	7	8	10	4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사 과	신문 방송 학							1							1	1					1	6	
	법학									1		1				1	1	2	2	1			16
	경제 /경 영학			1		1	2	1	1	2	1	4	1	2		4	4		3				30
	정치 외교 학	1		3	2	4	8	6	4	2	3		3	3	6	8			2	4	2	3	85
	사회 /사 회복 지학	1	2	8	6	5	3	13	12	16	7	5	6	9	9	8	7	9	5	7	5		16
	사회 과학 일반	1	2			3	2	3	6	14	11	22	13	8	17	6	13	12	11	10	10	13	19
	사회 과학 일반	1	1			1	1	7	3	2	1	2	3	2	2	2	5	3	5	2	2		48
	행정 학	2	1			3	1		1	2	4	15	9	8	5	1	7	3	2	5	1		71
	교육 학		1										1	1	3	1		1			3	1	12
	지리 /지 역학								1														1
	민속 학								1								1						2
	심리 과학													1									1
	관광 학													1	1	1							4
	철학																1						
합	6	7	12	11	16	18	34	37	36	41	42	34	42	29	41	36	30	34	28	25		63	

<표 2> DBpia 이용수 기준 상위 10개 논문

	저자	연도	논문제목	학술지	이용수
1	김나라·최지원	2014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과 과제: 아일랜드·덴마크·스웨덴·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진로 교육연구	2,595 (0)
2	유숙란·오재림·안재희	2007	한국, 스웨덴, 독일의 성매매 정책 결정과정 비교분석: 성매매관련 공공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 여성학	2,586 (1)
3	김병찬	2011	핀란드 교육복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교육비평	2,376 (0)
4	김영순	2012	복지동맹 문제를 중심으로 본 포편적 복지국가의 발전 조건: 영국·스웨덴의 비교와 한국에의 함의	한국 정치학 회보	2,135 (0)
5	김미성·전겨옥·문경희	2007	한국과 스웨덴의 여성 고용과 남녀고용 평등정책 비교	아시아 여성연구	1,964 (0)
6	조미숙	2006	방과후 교육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스웨덴, 독일, 미국, 일본	교육문화 연구	1,844 (0)
7	이상일	2009	복지국가 의료개혁의 보건 관련 성과와 의료 탈상품화의 정치: 영국, 미국, 스웨덴, 이탈리아의 의료개혁 비교연구	한국 사회학	1,782 (0)
8	박은혜·장민영	2014	통합 요소별로 살펴본 8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현황 비교: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영국, 일본, 프랑스, 핀란드	교육과학 연구	1,370 (0)
9	손혜경	2012	스웨덴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	국제노동브리핑	1,283 (0)
10	이재율	2006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형성과 위기	한국사회과학연구	1,253 (0)

비고) 이용수 옆 괄호 안 숫자는 피인용수를 의미; 이용수 검색은 2017년 11월 6일 기준

셋째로, DBpia의 기본분류는 - 다른 분류 기준도 마찬가지로지만 - 개별 논

문 수준에서 분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들 논문이 수록된 학술지 수준에서 분류가 이루어진다. 즉, 지역학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은 개별 논문이 실제 다루고 있는 내용과 상관없이 모두 "지리/지역학" 연구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따른다면 "스칸디나비아연구"에 수록된 모든 연구는 "지리/지역학" 분야 연구로 분류 가능하며, 이 경우 위 표와 달리 "지리/지역학" 연구의 수가 대폭 증가하게 된다. 또한, 2000년을 기점으로 스칸디나비아 연구 수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 숫자로 증가한 이유는 당시 "스칸디나비아연구"가 발간되면서 발표 논문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넷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점 가운데 하나는 경제/경영학 분야의 논문 수가 의외로 매우 적다는 점이다. 더불어,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소수의 경제/경영학 논문 가운데 대부분은 경제학이 아닌 경영학 논문이다(예. 발렌베리 소속 재단의 지배구조 등). 복지국가의 형성, 유지 및 발전과 관련하여 경제적 관점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스칸디나비아 연구의 복지 관련 담론은 경제적 관점보다 정치적 혹은 사회적 관점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외국 스칸디나비아 지역 연구의 경우 경제/경영 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 논문이 전체에서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김기수 이성준, 2017). 이는 앞으로 후속 연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DBpia에서 검색된 논문 가운데 이용수가 많은 논문 상위 10개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여기서 이용수란 DBpia를 통해 논문이 다운로드된 횟수를 의미한다. 참고로, 피인용수도 검색할 수 있지만, 피인용수가 5개를 초과하는 논문이 없는 관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여기서 소개하지 않기로 한다. <표 2>를 살펴보면 몇몇 흥미로운 점이 관찰된다. 첫째로, 이들 논문 가운데 대부분은 정책연구(policy studies) 또는 정책비교연구(comparative policy analysis)로 분류될 수 있다. 둘째로, 교육 정책 관련 논문(1, 3, 6, 8번)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눈에 띈다. 이는 분명 북유럽 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주로 이들 국가의 교육 정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가운데 많은 연구가 북유럽 국가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여러 국가의 정책비교연구인 관계로 해석에 주의를 요

구한다.

전반적으로, 국내 스칸디나비아 연구는 분명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아직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유럽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적 현상을 그들의 관점에서 내부적으로 접근(emic approach)하려는 학문적 시도는 아직 그 수가 매우 적은 편이며 상당수 연구가 비교연구 관점(etic approach)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책연구 수가 다른 연구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 스칸디나비아 연구는 아직 많은 발전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자세한 분석은 이어지는 키워드 분석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3.2. 키워드 분석

3.2.1. 학문 분야별 및 시기별 키워드 분포

앞서 살펴본 전반적인 연구 동향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사회/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일반 그리고 최근에는 교육학 및 정치외교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수의 키워드가 추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3 참조). 특히 교육학 관련 분야는 2000년대에 비해 그 수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학/경영학 분야와 법학 분야 역시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에 들어와 증가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행정학 분야에 해당되는 키워드가 2000년대에는 전무하다가 2010년대에 들어와 대거 등장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라 하겠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1990년대까지의 논문 키워드는 제시되지 않았기에, 2000년대 이전에 이루어진 스칸디나비아 지역연구에서 사용된 주된 연구 키워드는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기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검색 논문 수로 볼 때, 1970년대까지 발표된 것이 3편, 1980년대 논문이 7편, 1990년대 논문이 45편으로 총 55편의 논문이 2000년대 이전 샘플이었다. 그러나 키워드 데이터는 2000년대 이후의 논문에만 제시되어 있어, 통시적 차원에서 스칸디나비아 지역연구에서의 키워드 흐름을

살펴보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밝혀둔다.

<표 3> 사회과학 관련 분야 및 시기별 키워드 분포

분야	시기	키워드 수	대표 키워드(횟수)
경제학/경영학	2000년대	18	국가경쟁력(1)
	2010년대	26	기계학습(1)
	소계	44	
관광학	2000년대	3	여가생활(1)
교육학	2000년대	13	교육체제(2)
	2010년대	61	종합학교(2)
	소계	74	
법학	2000년대	10	국제분쟁(1)
	2010년대	38	교육법(2)
	소계	48	
사회과학일반	2000년대 이전	3	스웨덴모델(1)
	2000년대	73	세계화(3)
	2010년대	84	생활자네트워크(2)
	소계	160	
사회학/사회복지학	2000년대	60	노동시장제도, 부모휴가(2)
	2010년대	71	시장화, 연대임금정책(2)
	소계	131	
심리학	2010년대	6	목격자증언(1)
정치외교학	2000년대	58	노사정관계, 코포라티즘(3)
	2010년대	50	코포라티즘(3)
	소계	108	
지리학/지역학	2000년대	29	중간계급(1)
	2010년대	13	가치공유(1)
	소계	42	
행정학	2010년대	71	거버넌스(5)
전체		687	

다음 페이지에 제시된 <표 4>는 전체 키워드 687개 중에서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진, 즉 독립적으로 사용된 키워드를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절대적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선불리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터이나, 가장 많이 사용된 독립 키워드가 ‘복지국가’ 및 ‘코포라티즘(corporatism)’이라는 점을 보면 해당 지역 연구에 있어 복지(체제)와 그것을 가능케 한 핵심요인

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LO’나 ‘사회민주주의’라는 키워드가 바로 뒤이어 많이 언급된 점 역시 그러한 유추를 가능케 하는 요소라 하겠다.

개별 국가명이 키워드로 사용된 경우로 보면 스웨덴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결국은 스칸디나비아 지역 연구가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 복지체제와 그것의 기반요소를 살펴보는 데 많이 집중하였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 다음으로는 핀란드가 많이 언급되었는데, 핀란드는 특히 2010년대에 들어와 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스칸디나비아 지역 외의 국가들(영국, 한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은 스칸디나비아 지역 국가들과의 특정한 주제 혹은 정책 간 비교연구 차원에서 언급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표 4> 전체 추출 키워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독립 키워드와 국가/지역

독립 키워드	횟수	국가/지역 키워드	횟수
복지국가	6	스웨덴	22
코포라티즘	6	핀란드	10
세계화	5	덴마크	5
LO	4	영국	5
사회민주주의	4	북유럽	4
유연안전성	4	한국	4
노사정 관계	3	네덜란드	3
농업인력	3	독일	3
돌봄서비스	3	프랑스	3
사회적 협의	3		
스웨덴 사회민주당	3		
시장화	3		
신자유주의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3		
탈상품화	3		

<표 5> 전체 추출 키워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키워드 상위 20개

순위	키워드	횟수	순위	키워드	횟수
1	정책	37	11	정치	17
2	사회	36	12	관계	12
3	교육	33	13	젠더, Gender	12
4	~주의, ~ism	27	14	아동	10
5	체제, 체계, system	27	15	평등	8
6	복지	25	16	가족	7
7	국가	19	17	개혁	6
8	노동	19	18	고용	7
9	서비스	19	19	양육	7
10	시장	17	20	학교	7

<표 5>는 전체 키워드 687개 중에서 그 단어 자체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들과 결합함으로써 의미를 획득하여 사용되었던 키워드를 언급된 횟수에 따라 상위 20개를 선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정책’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가진 독립 키워드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교육정책’, ‘보육정책’, ‘노동시장정책’, ‘복지정책’ 등과 같이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맥락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즉 ‘정책’ 키워드는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와 결합해 획득한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여 사용된 것이 모두 37차례였다는 의미이다. ‘정책’ 키워드의 다음 순위에 자리한 ‘사회’, ‘교육’ 등의 키워드 역시 ‘정책’ 키워드 분석과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정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아울러 <표 5>에 제시된 상위 20개 키워드 상호 간 연결이 빈번했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순위인 ‘정책’과 3순위인 ‘교육’이 결합함으로써 ‘교육정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이다. 즉 두 개의 단어가 실제로는 3가지 키워드-‘정책’, ‘교육’, ‘교육정책’-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후의 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2.2. 상위 20개 키워드의 연관 키워드 분석

본 항목에서는 앞서 살펴본 <표 5>에 의거하여, 상위 20개의 해당 키워드

가 제시된 논문을 따로 추출-예를 들어 ‘정책’이란 단어가 키워드에 포함된 논문만 별도로 추출-한 다음, 그 논문들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많이 사용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즉 상위 20개 키워드는 어떤 단어들과 주로 연결되어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위 20개 키워드와 관련된 종속 키워드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스칸디나비아 지역 연구에 있어 어떠한 흐름과 양상이 있었는지를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해보고자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만 지면 등의 제한이 있으므로, 20개 키워드 전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상위 10개 키워드 분석에 한정하며, 연관 키워드는 최소 2번 이상 언급된 것으로 제한하기로 한다.

① 정책

‘정책’이란 키워드가 들어간 논문에 사용된 키워드는 모두 189개로, 그중 가장 많은 분야는 사회학/사회복지학에서 55개, 다음으로 사회과학일반에서 41개가 추출되었다¹⁾. 시기별로 보면 2000년대에 112개, 2010년대에 77개가 분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육, 여성, 아동(양육)수당, 가족 등 가족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노동(시장) 및 고용, 유연안정성 등 일자리 관련 내용도 적지 않다. 이를 통해 볼 때 정책 관련 연구의 중심은 가정과 고용 관련 주제였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② 사회

‘사회’란 키워드가 들어간 논문에 사용된 전체 키워드는 모두 162개로, 그중 정치외교학 분야가 57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과학일반 분야에서 38개가 추출되었다²⁾. 시기별로 보면 2000년대에 78개, 2010년대에 84

-
- 1) 사회학/사회복지학 분야의 논문 예: 우명숙. 2010. “스웨덴 공공부문 여성 지배직종의 임금불평등과 노동조합의 대응”. 『한국사회학』 제44집 2호. 한국사회학회, pp. 29-58. 사회복지학 분야의 논문 예: 선학태. 2014. “노르딕민주주의의 동학: 합의제 정당정치와 조합주의 정치의 연계”. 『평화연구』 제22권 제2호.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pp. 255-292.
 - 2) 정치외교학 분야의 논문 예: 장선화. 2014. “사회협약의 정치: 세계화시대 경제위기와 집권 정당의 위기극복 전략”. 『한국정당학회보』 제13권 제2호. 한국정당학회, pp. 63-99. 사회과학 일반 분야의 논문 예: 김지연. 2010.

<표 6> ‘정책’과 연관된 키워드

연관 키워드	횟수	연관 키워드	횟수
보육(공-)	8	경찰	3
여성(-세력, -운동, -직종)	7	교도소(교정)	3
노동시장정책(적극적-)	6	복지	3
스웨덴	6	복지국가	3
수당(아동-, 양육-)	5	부모휴가	3
가족	4	복유럽	3
고용	4	세계화(지구화)	3
노동(-계급, -생산성, -시장)	4	임금(-구조, 연대-)	3
유연안진성	4	정당(-시스템, 합의제-)	3
정치(연합-, -참여)	4	정부(-신뢰, -역할)	3

개가 분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복지(국가), 고용, 양육 등 복지체제 관련 내용이 사회 관련 연구에서도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이의 토대가 되는 정치 및 정당 체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파악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책’과 ‘사회’ 관련 키워드 모두 복지와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③ 교육

‘교육’이란 키워드가 들어간 논문에 사용된 전체 키워드는 모두 71개로, 교육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50개, 다음으로 법학 분야에서 17개가 추출되었다³⁾. 시기별로는 2000년대에 16개, 2010년대에 65개가 분포한다. 교육 관련

“한국과 스웨덴 청소년의 가정 내 사회화 환경 비교 연구: 긍정적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8호. 한국청소년학회, pp. 157-176.

3) 교육학 분야의 논문 예: 김경자. 2011. “핀란드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징 고찰”. 『교육과정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교육과정학회, pp. 111-135. 법학 분야의 논문 예: 김용훈. 2014. “교육 복지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함의: 노르웨이의 교육 복지 관련 법제도적 특징을 참고하여”. 『서울法學』 제21권 제3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pp. 215-261.

<표 7> ‘사회’와 연관된 키워드

연관 키워드	횟수	연관 키워드	횟수
스웨덴	7	경찰	3
정당(집권-, -체계, 해적당)	7	사회민주주의	3
고용(-평등, -할당)	5	세계화	3
복지국가	5	코포라티즘	3
협외(- 협약)	5	교정	2
사회보장(사회복지)	5	권력자원	2
정치(연합-, 조세-, -사상)	5	노사정 관계	2
노동시장(-정책)	4	다문화	2
복지(-체제)	4	북유럽(스칸디나비아)	2
양육(-방식, -사회화)	4	시민권, 사회적기업 등 11개	2

분야는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분야와 달리 교육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핀란드가 주목받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교육과정이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파악된다. 아울러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교원)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외국에서 진행되는 스칸디나비아 지역 연구의 경우에서 봤던 것처럼 세계적 추세와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기수 이성준, 2017).

④ 주의(ism)

‘주의(ism)’란 키워드가 들어간 논문에 사용된 전체 키워드는 모두 142개였으며, 분야별로는 정치외교학에서 가장 많은 54개, 다음으로 사회과학일반 분야에서 40개가 추출되었다⁴⁾. 시기별로는 2000년대 이전에 3개, 2000년대

4) 정치외교학 분야의 논문 예: 문경희·전경옥·김미성. 2007. “제도화된 여성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정당(Feminist Initiative)을 중심으로”. 『國際政治論叢』 제47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pp. 149-172. 사회과학일반 분야의 논문 예: 박익규. 2004. “세계화와 한국의 사회정책: 영국·스웨덴 사례 비교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4권 제1호. 한독사회과학회, pp. 317-345.

<표 8> '교육'과 연관된 키워드

연관 키워드	횟수
과정(교육-, 국가교육-)	5
핀란드	5
교사(교원)	4
교육제도(-체제)	4
아동교육(유아-)	4
경찰	3
교육법	3
학교(고등-, 종합-)	3
복지	2
집회시위 관리	2

에 70개, 2010년대에 69개가 분포한다. 세부적으로는 노동시장, 코포라티즘, 사회민주주의의 관련 내용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들어와 사회(사회복지) 체제 변화 등과 관련하여 신자유주의가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주의(ism)'와 연관된 키워드

연관 키워드	횟수	연관 키워드	횟수
스웨덴	9	자본주의	3
노동시장(-유연화, -제도)	6	복지동맹	2
코포라티즘	6	복지국가	2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	5	시민참여	2
신자유주의	4	영국	2
고용(-장벽, -평등)	3	외교안보정책	2
보편주의	3	제도주의	2
복지	3	핀란드	2
신제도주의	3		
여성(-이민자, -운동)	3		

⑤ 체제, 체계(system)

<표 10> ‘체제 또는 체계’와 연관된 키워드

연관 키워드	횟수	연관 키워드	횟수
스웨덴	6	교육법	2
정당(-체제, 이슈-, 해적당)	6	노사위원회	2
고용(-관계, -할당)	5	단체교섭	2
교육(-체제, -제도)	5	사회보장(-제도)	2
노사(-정) 관계	3	생산레짐	2
복지(-개혁, -동맹, -체제)	3	세계화	2
복지국가	3	양육(-수당, -사회화)	2
소비자(-보호, -분쟁)	3	역사경로 의존	2
고준위방사성폐기물	2	유아	2
교사	2	품질관리, 노동시장 등 5개	2

‘체제’ 또는 ‘체계’란 키워드가 들어간 논문에 사용된 전체 키워드는 모두 141개였으며, 분야별로는 정치외교학과 사회학/사회복지학에서 각각 29개, 28개로 가장 많이 추출되었다⁵⁾. 시기별로는 2000년대에 61개, 2010년대에 80개가 분포한다. 세부적으로는 정당, 고용, 교육 관련 연구가 체제 또는 체계 연구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거시적 차원에서 복지(국가)와의 연관성 및 구조적 차원을 파악하는 연구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⑥ 복지

‘복지’란 키워드가 들어간 논문에 사용된 전체 키워드는 모두 125개로, 사회과학일반 분야에서 가장 많은 42개, 다음으로 정치외교학 분야에서 37개가 추출되었다⁶⁾. 시기별로 보면 2000년대에 64개, 2010년대에 61개가 분포

5) 정치외교학 분야의 논문 예: 안재홍. 2004. “생산레짐과 복지국가체제 상호연계의 정치: 이론적 논의와 스웨덴 노사관계 사례의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5호. 한국정치학회, pp. 391-416. 사회학/사회복지학 분야의 논문 예: 양윤정·최연혁. 2014.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본 스웨덴 복지모델과 기업의 시간제 근로 운영 사례”. 『한국사회정책』 제21집 제1호. 한국사회정책학회, pp. 9-46.

6) 사회과학 일반 분야의 논문 예: 전승훈. 2014. “복지재원과 조세 구조: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조세 구조 변화와 시사점”. 『동향과전망』

한다. 세부적으로는 보면 최근에 들어와 생태복지국가 및 복지와 교육의 상관성에 관심을 두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최근 복지(체제)의 변화상을 세계화와의 연관성 하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도 많았음을 살펴볼 수 있다.

<표 11> '복지'와 연관된 키워드

연관 키워드	횟수	연관 키워드	횟수
국가(-국가, 생태-국가)	10	생산레짐	2
스웨덴	5	역사경로의존	2
세계화	4	역진세	2
교육	4	자원봉사	2
LO	3	코포라티즘	2
노사(정) 관계	3	탈상품화	2
복지모델	3		
양육	3		
SAF	2		
노동시장정책	2		

⑦ 국가

‘국가’란 키워드가 들어간 논문에 사용된 전체 키워드는 모두 97개였는데, 사회과학일반 분야에서 가장 많은 26개가 추출되었고 다음으로 정치외교학에서 24개가 추출되었다⁷⁾. 시기별로는 2000년대에 48개, 2010년대에 49

2014년 가을·겨울 호(통권 92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pp. 51-91. 정치외교학 분야의 논문 예: 김영순. 2012. “복지동맹 문제를 중심으로 본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 조건: 영국·스웨덴의 비교와 한국에의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1호. 한국정치학회, pp. 337-358.

7) 사회과학 일반 분야의 논문 예: 박용수. 2005. “세계화와 복지국가: 스웨덴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5권 제2호. 한독사회과학회, pp. 217-239. 정치외교학 분야의 논문 예: 이연호. 2006. “코포라티즘의 쇠퇴요인, 자본의 이탈: 스웨덴과 그 이웃 국가들의 사례연구를 통한 이론적 문제제기”. 『21세기정치학회보』 제16집 제1호. 21세기정치학회, pp. 195-218.

<표 12> ‘국가’와 연관된 키워드

연관 키워드	횟수	연관 키워드	횟수
복지국가(생태-)	10	덴마크	2
스웨덴	6	보편주의	2
핀란드	4	북유럽국가	2
노사(정) 관계	3	세계화	2
복지(노인-, -동맹)	3	자원봉사	2
스웨덴 사회민주당	3	집회시위관리	2
실업(-급여)	3		
LO	2		
경찰	2		
노동시장(-정책)	2		

개가 분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가라는 개념은 복지와 관련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살필 수 있다. 또한 고용 관련 분야(노사정, 실업, 노동시장 등)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연구가 많았던 것으로 짐작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⑧ 노동

‘노동’이란 키워드가 들어간 논문에 사용된 전체 키워드는 모두 106개였다. 이중에서 가장 많은 분야는 사회과학일반으로 33개, 다음으로는 정치외교학과 사회학/사회복지학이 각각 30개 추출되었다⁸⁾. 시기별로는 2000년대 이전에 3개, 2000년대에 85개, 2010년대에 18개 분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노동과 관련해서는 복지국가 또는 사회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노동시장 정책 및 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들어와서는 유연안정성(노동유연화)이나 세계화 역시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볼 수 있다.

8) 사회과학 일반 분야의 논문 예: 김형기. 2008.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동시장제도 연구: 영국·독일·덴마크 3국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2008년 제8권 제3호. 한국노동연구원, pp. 93-124. 사회학/사회복지학 분야의 논문 예: 심재승·구철희. 2012. “경제와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본 스웨덴모델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사회정책』 제19집 제4호. 한국사회정책학회, pp. 49-78.

<표 13> '노동'과 연관된 키워드

연관 키워드	횟수	연관 키워드	횟수
노동시장(-제도, -정책, 조직)	7	연대임금(-정책)	3
LO	5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3
노동(-개혁, 분업 등)	5	코포라티즘	3
고용(-보호, -평등 등)	4	SAF	2
복지국가	4	신자유주의	2
사회민주주의	4	실업(-급여, -보호)	2
스웨덴	4	유연성(유연화)	2
유연안정성	4	직중분리	2
세계화	3	노동유연화	2
스웨덴 사회민주당	3		

⑨ 서비스

‘서비스’란 키워드가 들어간 논문에 사용된 전체 키워드는 모두 74개로, 사회학/사회복지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29개가 추출되었으며, 다음으로는 행정학 분야에서 19개가 추출되었다⁹⁾. 시기별로 보면 2000년대에 35개, 2010년대에 39개가 분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양육(보육) 및 가족 관련 내용이 (돌봄)서비스 연구의 주된 분야임을 짐작해볼 수 있으며, 나아가 (돌봄)서비스의 지속적인 관리 및 유지 방안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9) 사회학/사회복지학 분야의 논문 예: 윤승희. 2010. “북유럽 국가들의 돌봄의 가족화 정책: 부모휴가와 아동가정양육수당정책에 나타나는 아버지 상(像)의 상이성”. 『상황과 복지』 제30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pp. 125-162. 행정학 분야의 논문 예: 심재승. 2014. “스웨덴 사회보장의 중앙-지방관계”. 『한국정 책과학학회보』 제18권 제1호. 한국정책과학학회, pp. 49-74.

<표 14> ‘서비스’와 연관된 키워드

연관 키워드	횟수	연관 키워드	횟수
돌봄(-서비스, 성인-서비스)	4	장기요양서비스	2
품질관리	4	재정지원방식	2
양육(아동)수당	3	핀란드	2
가족	2		
교원	2		
교정	2		
보육	2		
사회보장	2		
사회서비스	2		
시장화	2		

⑩ 시장

‘시장’이란 키워드가 들어간 논문에 사용된 전체 키워드는 모두 70개였으며, 분야별로는 사회학/사회복지학에서 39개, 사회과학 일반과 정치외교학 분야에서 각각 13개가 추출되었다¹⁰⁾. 시기별로는 2000년대에 39개, 2010년대에 31개가 분포한다. 세부적으로는 보면 노동시장 관련 내용이 매우 많은데, 그중에서도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매우 많이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자리한 노동시장개입이나 노동시장제도 등을 통해서도 ‘시장’과 관련된 논문에서는 노동시장 관련 사항이 주된 연구 분야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유연(안정)성’, ‘시장화’, ‘신자유주의’ 등도 ‘시장’과 관련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과 관련된 전반적이고 시대적인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는 연구도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10) 사회학/사회복지학 분야의 논문 예: 정이환. 2005. “사민주의 노동체제는 와해되는가: 북유럽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 『경제와 사회』 통권 제67호. 비판사회학회, pp. 171-195. 사회과학 일반 분야의 논문 예: 성연옥. 2012. “독일·스웨덴·프랑스의 고용관계 비교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 제2호. 한독사회과학회, pp. 107-145.

<표 15> '시장'과 연관된 키워드

연관 키워드	횟수
노동시장정책(적극적-)	6
노동시장(-개입, 제도 등)	5
유연안정성(유연성)	4
사회민주주의	3
시장화	3
신자유주의	3
돌봄서비스	2
복지	2
스웨덴	2
연대임금	2

4.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위에서 논의된 각종 분석 결과를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국내 스칸디나비아 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특히 사회과학일반, 사회/사회복지학, 정치외교학, 교육학 분야에서 약 10년간 상대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최근 - 비록 향후 추이는 불확실하지만 -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인다. 둘째로, 이들 연구 가운데 상당수는 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 복지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거나, 또는 이를 가능케 한 사회적 배경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전자의 경우 특히 가족복지(예. 노인, 아동, 여성 정책 등) 및 교육정책 관련 키워드의 수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편이었으며, 후자의 경우 복지국가 담론을 둘러싼 정치적, 법적 뒷받침 또는 노동시장 상황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상위 10개 키워드 순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자보다 후자의 연구가 훨씬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직 국내 스칸디나비아 연구의 흐름이 주로 '거대 담론' 위주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지역 측면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스웨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예외적으로 교육 관련 연구의 경우 핀란드 교육 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국내 스칸디나비아 연구

가 ‘각론’보다 아직은 스칸디나비아 복지 모형에 대한 ‘총론’ 수준의 전반적인 이해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대한 한국 내 관심이 기본적으로 이들이 이룩한 높은 수준의 복지 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에 놓여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미 위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2017년도에 발표된 『스칸디나비아 지역 연구의 흐름과 동향: SCOPUS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와 유사하며, 따라서 연구 결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두 연구 간 비교를 통해 국내 그리고 외국 스칸디나비아 연구 흐름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국내 스칸디나비아 연구에서 경제/경영 관련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외국 스칸디나비아 연구와 비교해 극단적으로 작다는 점이다. 특히, 1990년대 이전 초기 외국 스칸디나비아 연구의 경우, 복지보다 특히 경제 관련 연구가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비록 잠정적인 가설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몇 가지 서로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먼저, 외국 - 특히, 서양 - 학자는 스칸디나비아 복지 모델을 가능케 한 요인을 이들 국가의 경제 구조에서 가장 먼저 찾았지만, 국내 학자는 사회적 요인 - 예를 들어, 시민주의 또는 노사정 합의 등 - 에서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대적 차원에서 1970년대 당시 12차 석유과동과 함께 경제 불황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이후 서구 학계를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 복지 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비슷한 시기 국내 학계의 경우 이러한 종류의 논의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이후 많은 유럽 국가가 복지 규모를 축소하고 창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창업(entrepreneurship)’, ‘혁신(innovation)’,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 등과 같은 경영학 관련 키워드가 스칸디나비아 연구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국내 스칸디나비아 연구의 경우

이러한 키워드는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복지 관련 연구의 경우, 외국 스칸디나비아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로 그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반면 국내 스칸디나비아 연구에서는 약 10년의 시차를 두고 그 수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다.

물론, 본 연구에 적용된 표본 추출 기준의 한계로 말미암아 국내 경제/경영 관련 스칸디나비아 연구 수가 실제보다 지나치게 적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보편적 복지를 가능케 한 경제 구조를 살펴보는 국내 관련 연구 가운데 상당수는 비교연구(comparative studies), 즉 여러 국가의 경제 구조를 동시에 비교, 분석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 연구는 표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차후 개별 연구 분야에 대한 세밀한 문헌 조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외국 스칸디나비아 연구의 경우 2010년 이후 그 수가 3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국내 연구의 경우 이러한 추이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최근 2년간 그 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도기적 차원의 일시적 감소인지, 아니면 보다 장기적인 현상인지 파악하는 것은 현재 수집된 자료로는 불가능하다. 다만, 국제적인 흐름을 감안하면 전자의 설명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2000년대 이후 외국 스칸디나비아 연구의 경우 ‘이민’, ‘젠더’, ‘교육’, ‘인종/민족’, ‘범죄’ 등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한 반면, 국내 스칸디나비아 연구의 경우 교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마도 외국의 경우 스칸디나비아 국가 내 이민자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이에 대한 국내 연구자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젠더 이슈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한국 사회가 앞으로 더욱 다원화되고 그 수준이 선진국의 수준에 근접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외국 스칸디나비아 연구가 활발하게 살펴본 각종 사회 이슈 관련 논의도 앞으로 국내에서 활발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분명한 한계점을 가진다. 먼저 논문에 포함된 키워드만을 활용하여 연구가 진행된 관계로 실제 개별 연구의 내용을 더욱 깊게 살펴보지 못한 점은 분명한 한계점으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스칸디나비아 연구로 검색된 논문 가운데 어느 정도가 국가 간 비교연구(comparative study)에 해당하는지 또는 스웨덴의 노인복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어떠한 논문을 주로 인용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론적 틀을 사용하는지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추가 질문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국내 스칸디나비아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이러한 심화 연구는 향후 개별 연구 분야의 심도 있는 문헌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적인 차원에서 DBpia의 분류 기준이 개별 논문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학술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일부 논문의 경우 전혀 다른 학문 분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각각의 논문을 자세하게 검토한 후 이를 올바르게 분류하는 것이 될 수 있겠으나 이는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며 본 연구진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본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혹자는 본 연구의 검색 조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 또는 지역명이 논문 제목에 포함된 논문을 소위 ‘스칸디나비아 연구’로 간주하는 것은 너무나 허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문 또는 요약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검색하는 경우 검색 범위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관계로 논문 수가 매우 많이 증가하며, 이를 모두 검토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본 연구진은 판단했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를 기존 연구와 비교하는 것도 본 연구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였던 바, 본 연구진은 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검색 조건을 활용했음을 밝힌다.

상기한 바와 같이 몇 가지의 한계점이 있음에도 본 연구는 현재까지 한국에서 진행된 스칸디나비아 지역연구의 큰 흐름을 거시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향후 연구에 있어 시의적절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다만 다소 부족한 준비기간과 연구자들의 미흡한 기술적 능력 등으로 말미암아 보다 더 많은 유의미한 내용을 추출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하겠다. 한국 내 정치·사회적 변화가 스칸디나비아 지역연구에 미치는 영향이나 해외 연구동향과의 관련성, 스칸디나비아 지역 내에서의 연구지형과의 비교 등도 본래 의도한 연구 목적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충분히 검증되거나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추후 지속적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경자. 2011. “핀란드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징 고찰”. 『교육과정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교육과정학회, pp. 111-135.
- 김기수 이성준. 2017. “스칸디나비아 지역 연구의 흐름과 동향: SCOPUS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연구』 19호.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pp. 1-50.
- 김연명. 2010.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9호. 민주사회정책연구원, pp. 15-41.
- 김연명. 2011. “동아시아 사회복지의 예외성?: 동아시아 사회복지의 최근 변화와 전망”. 『아세아연구』 143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pp. 7-21.
- 김영순. 2012. “복지동맹 문제를 중심으로 본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 조건: 영국 스웨덴의 비교와 한국에의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1호. 한국정치학회, pp. 337-358.
- 김용훈. 2014. “교육 복지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함의: 노르웨이의 교육 복지 관련 법제도적 특징을 참고하여”. 『서울法學』 제21권 제3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pp. 215-261.
- 김지연. 2010. “한국과 스웨덴 청소년의 가정 내 사회화 환경 비교 연구: 긍정적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8호. 한국청소년학회, pp. 157-176.
- 김태성. 1999. “복지국가의 한계(?): 스웨덴으로부터의 교훈”. 『사회복지연구』 13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pp. 61-85.
- 김형기. 2008.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동시장제도 연구: 영국·독일·덴마크 3국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2008년 제8권 제3호. 한국노동연구원, pp. 93-124.
- 문경희 전경옥 김미성. 2007. “제도화된 여성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정당(Feminist Initiative)을 중심으로”. 『國際政治論叢』

- 제47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pp. 149-172.
- 박용수. 2005. “세계화와 복지국가: 스웨덴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 독사회과학논총』 제15권 제2호. 한독사회과학회, pp. 217-239.
- 박익규. 2004. “세계화와 한국의 사회정책: 영국 스웨덴 사례 비교 연구”. 『한 독사회과학논총』 제14권 제1호. 한독사회과학회, pp. 317-345.
- 선학태. 2014. “노르딤민주주의 동학: 합의제 정당정치와 조합주의 정치의 연계”. 『평화연구』 제22권 제2호.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pp. 255-292.
- 성연옥. 2012. “독일 스웨덴 프랑스의 고용관계 비교 연구”. 『한 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 제2호. 한독사회과학회, pp. 107-145.
- 심재승·구철희. 2012. “경제와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본 스웨덴모델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사회정책』 제19집 제4호. 한국사회정책학회, pp. 49-78.
- 심재승. 2014. “스웨덴 사회보장의 중앙-지방관계”.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8권 제1호. 한국정책과학학회, pp. 49-74.
- 안재홍. 2004. “생산레짐과 복지국가체제 상호연계의 정치: 이론적 논의와 스웨덴 노사관계 사례의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5호. 한국정치학회, pp. 391-416.
- 양윤정·최연혁. 2014.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본 스웨덴 복지모델과 기업의 시간제 근로 운영 사례”. 『한국사회정책』 제21집 제1호. 한국사회정책학회, pp. 9-46.
- 우명숙. 2010. “스웨덴 공공부문 여성지배직종의 임금불평등과 노동조합의 대응”. 『한국사회학』 제44집 2호. 한국사회학회, pp. 29-58.
- 유팔무. 2015. “21세기 한국 사회 재생산의 위기와 복지국가 대안 논의”. 『경제와 사회』 106호. 비판사회학회, pp. 296-324.
- 윤승희. 2010. “북유럽 국가들의 돌봄의 가족화 정책: 부모휴가와 아동가정 양육수당정책에 나타나는 아버지 상(像)의 상이성”. 『상황과 복지』 제30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pp. 125-162.
- 이연호. 2006. “코포라티즘의 쇠퇴요인, 자본의 이탈: 스웨덴과 그 이웃 국가

- 들의 사례연구를 통한 이론적 문제제기”. 『21세기정치학회보』 제 16집 제1호. 21세기정치학회, pp. 195-218.
- 장선화. 2014. “사회협약의 정치: 세계화시대 경제위기와 집권 정당의 위기 극복 전략”. 『한국정당학회보』 제13권 제2호. 한국정당학회, pp. 63-99.
- 전승훈. 2014. “복지재원과 조세 구조: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조세 구조 변화와 시사점”. 『동향과전망』 2014년 가을 겨울 호(통권 92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pp. 51-91.
- 정이환. 2005. “사민주의 노동체제는 와해되는가: 북유럽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 『경제와 사회』 통권 제67호. 비판사회학회, pp. 171-195.

<Abstract>

Research Trends in Scandinavian Studies in South Korea

Lee, Sung-Jun* · Kim, Kisu**

The goal of the study is threefold: 1) collecting all the Scandinavian studies published in South Korea up to now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 and extracting the basic statistical data of them, 2) analysing key words included in these studies in order to scrutinize overall research trends in each of the emerging research topics and 3) compari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Scandinavian research trends. The academic database of DBpia and e-Article were used to search and extract relevant papers. The results show that Scandinavian studies were most actively conducted between the mid-2000s to the mid-2010s in South Korea, especially in the field of sociology, social welfare, politics and pedagogy. Often, these studies either tried to look closely into the Scandinavian welfare system itself in detail or a variety of social contexts that could enable it. Compari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Scandinavian studies, it turns out that economic/management studies appeared much less in the latter. The number of research topics appeared in the latter were also much fewer than the former.

Key Words: Scandinavian studies, Nordic countries, area studies, keyword analysis, DBpia, bibliometrics

* Department of Brazil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Center for Scandinavia Stud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성명: 김기수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칸디나비아연구센터
E-mail: serwetus@yahoo.com

성명: 이성준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브라질학과
E-mail: sungjun_lee@hotmail.com

논문 접수일: 2018.5.29.
수정원고 접수일: 2018.6.24.

논문심사 완료일: 2018.6.22.
게재 확정일: 2018.6.24.